

케빈 나 “한국 골프의 원동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골퍼 케빈 나(35, 한국명 나상욱, 사진) 선수가 한국 골프의 원동력으로 경쟁적 멘탈(정신력)을 꼽았다.

지난 21일 ‘노던 트러스트’에 출전했던 재미교포 1.5세 골퍼 케빈 나 이날 오후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리지우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종의 한국적 멘탈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계로서 매우 놀랍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많은 훌륭한 한국 골퍼들이 있고 LPGA(미국여자프로골프)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경기에 가더라도 한국인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최경주 선배에게서 배울 게 많았다. 주니어 선수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갈수록 쟁쟁한 한국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고 자극도 된다.”며 “나는 영어와 한국어가 자유롭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후배들에게 PGA의 다양한 소식과 분위기를 열심히 알려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케빈 나 “한국에서 골프를 배우는 젊은 선수들은 정



말 열심히 훈련한다. 놀랄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결국 그 비결일 것”이라며 “PGA 투어는 장기전인 만큼 연습과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인내를 갖고 차분히 준비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빈 나 “지난 7월,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프스프링스의 올드 화이트 TPC(파70·7286야드)에서 열

린 PGA 투어 밀리터리 트리뷰트 앳 더 그린브라이어에서 우승한 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우승해서 기쁩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빈 나 “(한국어 소감은)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한국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8세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케빈 나 9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 12세 때 US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해 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고, 1999년과 2000년에는 타이거 우즈가 1991년 우승을 차지했던 로스앤젤레스시티챔피언십을 잇달아 제패했다.

큰 기대와 함께 2004년 PGA에 데뷔했으나 유독 우승과 인연이 없어 준우승 9차례, 3위는 8차례나 했다. 2011년 10월 저스틴 탐버레이크 수라이너스 아동 병원 오픈에서 처음 투어 우승을 차지했으며 올 7월 PGA 투어 밀리터리 트리뷰트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우즈- 미켈슨, 900만 달러 놓고 맞짱 골프

‘돌아온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왼쪽 사진)와 베테랑 필 미켈슨(오른쪽 사진)이 ‘900만 달러 단판 승부’를 벌인다.

TV 중계사인 터너미디어는 지난 22일 “우즈와 미켈슨의 대결은 추수감사절 주말인 11월 24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크리크골프장에서 18홀 경기로 열린다.”고 확정 발표했다. 대회 상금은 애초 알려진 1,000만 달러가 아닌 900만 달러다. 상금은 이기는 사람이 모두 차지한다.

미켈슨은 우즈의 트위터에 “당신이 가장 손쉽게 900만 달러를 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남겼다. 우즈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자랑거리를 챙길 것 같다.”고 답했다. 대회는 장타와 니어핀 승부도 곁들인다. 선수와 캐디가 모두 마이크를 착용해 감탄사,



혼잣말, 대화 등 필드의 생생한 대화가 방송을 통해 전달된다.

우즈와 미켈슨은 각각 PGA 투어 79승(메이저 14승)과 43승(메이저 5승)을 올렸다. 투어 생활의 대부분을 ‘라이벌’ 관계로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이같은 이벤트가 성사됐다. 미켈슨이 우즈가 섹스 스캔들과 허리 수술 등으로 힘겨워 할 때 “언젠가 일어설 것이며, 꼭 필드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우즈가 마스터스 대회 등에서 동반 연습 라운드를 제안하는 등 화답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다.

우즈와 미켈슨은 생애 통산상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스포츠 재벌들이다. 1위인 우즈가 상금으로만 1억 1,220만 달러를, 2위인 미켈슨이 8,76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중계는 터너미디어의 유료케이블 방송이나 AT&T의 디렉트TV 등에서 돈을 내고 볼 수 있다. 시청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